화순군, 농업 안전사고 재해율 낮추기 '전력'

작목별 안전관리 · 소형 운반기기 지원 추진

화순군이 농업 안전사고 예방, 농업 재해율 낮추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순군은 4월부터 11월까지 5000만 원을 투입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1개소)'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작목반은 20명으로 구성된 '도곡·도암 복숭아 작목반(대표 양우승)'으로 봉숭아꽃 적화기와 전동 전정가위 등 안전장비 등을 지원한다.

군은 안전 보조기구 보급뿐 아니라 안전과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12회·240명)을 운영하고 농약 방제복 등 농작업 안전보호구 8종도 보급한다. 시범 사업은 근골격계 질환과 농약 중독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10개소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농작업 편이 장비 보급 사업을 펼쳤다. 또, 2018년에는 근력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편이 도모를 위해 3개소에 수확 농산물 소형 운반기기를 보급했다.

올해는 작목별 시범 사업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소형 운반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한국생활개선 화순군연합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농작업 안전사고(넘어짐) 예방 결의대회' 등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농작업 편이 장비 지원 사업 등은 장시간의 작업, 작업 자세의 불안정과 불편함, 무거운 농산물 취급과 운반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신체적 부담은 덜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능률까지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고령·여성 농업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한 편이 장비 보급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농민의 작업 부담이 54.58% 감소했고 피로 증상 감소율도 60.40%로 나타났다. 통증 감소율은 65.56%, 연간 작업 시간 감소율은 48.75%로 조사됐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해 농작업 위험요소를 분석해 농작업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더욱더 힘쓰겠다"며 "안전장비 보급,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흥군, 새내기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나서

농산업 기초교육부터 농업마케팅 및 경영기법 등 체계적 교육

장흥군은 지난 18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초 인재양성과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인 및 귀농예정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계속된다.

교육은 새내기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과 특강 및 자유토론으로 구성됐으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과 선진농업현장에서 진행된다.

세부교육과정은 농촌생활적응과 영농기술교육으로 농산업 기초교육, 작물, 원예, 과수, 특용작물, 농기계 안전이용 등이다.

귀농·귀촌 우수사례 및 전문농업기술, 농업마케팅과 경영기법,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 전문농업인으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장흥군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기술 정보 제공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귀농 사전 준비로 영농정착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귀농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농업 현실을 이해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장흥군은 자세한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귀농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 귀농·귀촌인의 성공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영암군, 100인 원탁토론회 참가자 모집

영암군은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정책 또는 이슈에 대해 소통하고 군정정책 아이디어를 토론하기 위해 오는 4월 11일 영암군 군민회관에서 '왁자지껄, 영암미래! 우리 힘으로! 영암군민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군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군민 100인이 모여 영암의 미래를 위한 정책제안과 실천과제 선정 등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함께 공유해 군정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과 관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영암군민이라면 누구나 원탁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참가신청서를 오는 29일까지 군청 기획감사실과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에서 최초 시행하는 100인 원탁토론회는 타운미팅 방식(토론과 합의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상하가 없는 원탁에서 참가자 전원이 참여해 공감과 소통의 토론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동평 군수는 "군민이 희망인 영암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공감의 열린행정을 지속해서 펼쳐 갈 예정"이라며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안은 검토 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영암군의 발전을 원하는 뜻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한 블록 군민 3분 걷기운동 캠페인 실시

무안군은 최근 무안읍 서울약국에서 무안초등학교까지 무안군청과 무안경찰서, 무안교육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한 블록 군민 3분 걷기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외 걷기는 비타민D 생성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치매예방 등 체중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걷고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기초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무안군의 주·정차난을 해소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담고 있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본격 가동

완도군 2019년도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4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산업의 일환인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바닷가의 맑은 공기와 바람, 해양에어로졸(바닷물의 미세한 공기입자), 비타민D 생성에 도움을 주는 태양광 등 해양 기후와 해수, 해양생물, 해양 경관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말한다.

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11회 484명이 참여하였고,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95%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봄 그리고 힐링'이라는 주제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노르딕워킹과 필라테스, 요가, 경락 체조, 밸런스워킹 PT, 해수찜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또한 완도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꽃차와 해조류로 만든 톳멸치주먹밥과 유자해초호떡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치유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체험 프로그램도 15회 진행되며, 전국 최초로 맞춤형 노르딕워킹 코스를 6월까지 개발, 정비 할 계획이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모집 인원은 회차 당 선착순 30명으로 관광객, 지역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지난 2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나, 완도군 해양치유산업과 해양의료지원팀(061-550-5682)에 문의하면 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여수시,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기관 선정

여수시는 지난 18일 여수여성쉼터가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해 운영기관에 임차보증금과 입주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폭력피해여성과 동반가족은 주거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시는 공모 선정을 위해 여성쉼터에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서 제출을 도왔다.

또 LH공사에 임대주택 10채를 배정받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폭력피해 여성에게 힘이 되어줄 주거시설이 여수에 들어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주거지원시설이 피해 여성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담양군, 풀뿌리창업 교육대상자 모집

담양군이 읍면소재지의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의 삶이 바뀌는 풀뿌리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담양군이 공모하여 선정된 행정안전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청년 10명(팀)에게 창업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창업비용(1개 팀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담양군 거주자이거나 창업지원자로 선정 후 1개월 내 담양군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 자이며, 1차 교육대상자 15명(팀)을 선발하고 교육과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창업지원자 10명(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21일부터 4월 5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담양군청 풀뿌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